

큰 키와 달라진 체형에 맞춰 학생용 책상과 의자 크기 늘리고, 안전성도 강화한다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(2020. 12. 28.)

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표준® ‘학생용 책상 및 의자’ 개정을 통해, 학생들의 체격과 수업 환경 변화에 맞춰 학생용 책상과 의자의 크기를 늘리고 안전성도 강화한다.

❖ 학생용 책상 및 의자(KS G 2010) 개정 배경

- 현행 표준은 2001년에 정해진 표준 신장을 기초로 규격을 도입한 뒤 학생들의 체격 증가와 수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.
 - ‘19년 초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표준의 개정을 요청하였으며,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정에 착수하였다.
 -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교육청의 학생건강검사 키, 몸무게 자료와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
 -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(‘15년)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표준에서 정한 각종 치수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, 의자의 좌판 길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
- 표준에서 정한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가 조사 자료의 엉덩이 너비보다 작은 경우는 48.5%로 과반수의 학생이 자신의 엉덩이 너비보다 폭이 좁은 의자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.

❖ 주요 개정 내용

-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커진 키에 맞는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현재 가장 큰 크기인 6호(키 180cm 기준)보다 큰 치수인 7호(키 195cm 기준)를` 신규 도입하고,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를 호수 별로 2~4cm 확대 하였다.
- 또한, 학생들의 늘어난 몸무게에 맞춰 제품의 강도와 내구성 시험 시 사용하는 힘의 세기와 횟수 등의 기준을 상향*함으로써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개정하였다.
- * (예시) 책상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사용하는 추의 무게를 기존 45kg에서 60kg으로, 의자의 강도시험과 내구성 시험 시 사용하는 힘의 세기 및 횟수를 각각 1,300N에서 1,600N으로, 12,500회에서 25,000회로 상향

[표] 7호 신규 추가 및 좌판 길이 확대 내용 발췌(단위 cm)

종류		0호	1호	2호	3호	4호	5호	6호	7호 (신규)
책 상	표준 신장	90	105	120	135	150	165	180	195
	책상 높이	40	46	52	58	64	70	76	82
	다리부 최소 높이	-	35	41	47	53	59	65	71
의 자	좌판까지 높이	22	26	30	34	38	42	46	50
	좌판 최소 너비	-	26	29	33	36	38	40	42
	좌판 최소 길이(확대)	-	27	29	32	34	36	40	42

- 아울러, 조별 토론수업 등 달라진 수업 환경에 활용될 수 있는 책상 상판의 각도조절, 캐스터 부착 책상, 그리고 발 받침대 부착 의자 등 기능성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추가하였다.
- KS 개정과 더불어 내년 초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차질 없이 KS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, 교육청에서 개선된 책상과 의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.

